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正統性 理論

民族史的 正統性的의 構成要素

研究執筆責任 金 惠

(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卒 (1958.)

美國 인디애나 大學院卒 (1962.)

韓國外國語大學教授 (1976年現在)

刊行責任 崔 炳 輔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I. 序	3
II.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	6
III. 韓國民族主義의 諸局面	9
IV. 北韓의 正統性 概念圖式	15
V.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構成하는 諸要素	28
(1) 政治史的 局面	28
(2) 思想史的 局面	36
(3) 文化史的 局面	39
(4) 利益的 局面	42
VI. 結 論	44

I. 序

國際的 和解의 進展과 더불어 國際政治의 支配的 추세는 軍事의 季節로부터 外交의 季節로 옮겨가고 있다.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도 外交戰이 漸次 熾烈해지고 있는 현상은 그 餘波의 하나이다.

現在 大韓民國에 대해서 北傀가 展開하고 있는 外交的 挑戰이 겨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目標가 韓國의 正統性을 崩壞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武力挑發 못지 않게 深刻한 意味를 지닌 것으로 對南赤化戰略의 가장 重要한 布石으로 보여진다. 越南事態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動機力(motivational power)¹⁾은 軍事力이나 經濟力과 같은 物量的 힘을 때때로 凌駕하는 国力의 要因이 된다는 것을 立証하고 있다.

本來 마르크스의 歷史分析에 따르면 社會主義的 世界革命은 民族國家體制를 全面的으로 崩壞시키고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秩序의 實現을 可能케 할 것이라는 確信을 提示하고 있었다. 그러나 共產主義도 다른 모든 普遍主義的 理念이 다 그랬던 것처럼 民族國家體制의 克服에는 成功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시아에서는 레닌의 아시아的 革命促進戰略에 따라 共產主義가 民族主義의 旗幟를 앞세우는 倒錯까지 나타나고 있다.

註 1) 動機力이란 體制의 正統性 外交力, 國民의 團結과 忠誠心 그리고 士氣等を 뜻한다.

北傀도 이에서 例外가 아니다. 北傀는 그 体制의 正統性を 構築하는 基盤으로서 맑스·레닌主義와 民族主義를 接合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우리는 것도 바로 이 民族主義의 要素이다.

더구나 中·蘇紛争의 反射效果로 強化된 北傀의 主体的 立場은 北傀의 民族主義的 偽裝의 展示效果를 높이고 있다는데서 우리의 보다 銳敏한 注目を 끈다. 北傀는 마치 그들이 民族主義的 勢力이고 大韓民國이 反民族主義的 外勢依存勢力인 것처럼 意識적으로 誇張함으로써 그들의 民族主義的 正統性を 높이고 反植民主義的 非同盟勢力의 同調와 呼応을 얻으려 하고 있다.

北傀는 民族主義戰略을 통해서 亞阿非同盟勢力의 「憤慨의 政治」에 便乘하고 있으며 正統性を 強化하고자 힘을 기우리고 있다.

最近 유엔을 中心으로 南北韓間의 外交戰이 熾烈한 樣相을 보이면서 이 正統性問題는 한층 더 銳敏한 問題로 前面에 浮刻되고 있다.

요즈음 正統性 問題가 새로운 관심으로 다뤄지고 있는 理由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한 몇가지 研究가 있었다. 그러나 대개가 断片的인 것이었고 보다 包括的인 研究가 드물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은 무엇이며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究明하는 努力은 相当히 時急하고 重大한 課題이다.

本稿도 이러한 課題를 풀어 보려는 조그마한 試圖의 하나이며

그 첫머리에서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을 둘러싼 混線을 除去하기 위하여 그 概念의 問題를 아주 간단히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民族史的 正統성을 構成하는 諸要素를 檢出하기 위하여 그 淵源이 되는 韓國民族主義의 諸局面을 갈라보았다. 民族主義研究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그런 것처럼 韓國民族主義研究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接近方法이 있을 수 있으며 그 接近方法들은 각기 다른 局面에 力點을 두고 다루게 된다.

따라서 韓國民族主義의 可能的 接近方法 가운데 正統性 檢出과 관련되는 몇가지 方法을 列挙함으로써 民族史的 正統性的 諸要素를 檢出할 수 있는 韓國民族主義의 몇가지 局面을 들춰 理論的 準拠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몇가지 局面을 中心으로 北傀가 主張하는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圖式에서 나타나는 矛盾을 摘出해 보았다.

그들 역시 民族史的 正統성을 固執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主張하는 正統性的 根拠와 概念을 좀더 鮮明히 浮刻시키기 위해서는 北傀의 그것과 對照시켜 보는 것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성을 構成하는 諸要素를 위에 말한 民族主義의 諸局面의 틀속에서 檢出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結論部分에서 몇가지 問題點을 整理해 보고 本報告書의 性格에 맞춰 몇가지 提案을 간추려 보았다.

II.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말은 흔히 쓰이고 있으나 그 概念은 반드시 明確한 것 같지 않다.

그 概念을 밝히기 위하여 우선 正統性的 뜻부터 살펴 볼 必要가 있다. 正統性 (Legitimacy)은 統治權力이 正当化되는 根拠로서 統治者의 統治의 正当性에 對한 確信과 被治者의 그 正当性에 對한 承認으로써 形成되는 것이다. 그러한 確信과 承認은 記述的이고 法的인 것으로 表現될 수도 있으며 規範的, 道德的인 것으로 表現될 수도 있다. 따라서 正統性的 概念은 이 두가지 뜻으로 같이 쓰여지고 있다. 1) 正統性은 때로 合法性이란 말과 區別없이 同意語로 쓰이기도 하고 或은 人民의 服從과 忠誠을 받을 만한 道德性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現代社會에 있어서 正統性은 그 淵源에 따라 選舉的, 正統性, 革命的 正統性, 民族主義 正統性으로 分類될 수 있다. 2) 選舉的 正統性이 公開競爭選舉를 통한 人民의 投票에서 統治의 正当性을 求하는 것이라면 革命的 正統性은 새롭고 보다 完全한 社會秩序의 創造를 위한 歷史의 道具로서 役割하는데서 統治의 正当性

註1)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Political Science: Scope and Theory",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1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p. 321 參照

2) Ibid., vol. 3, p. 49. 參照

을 求하는 것이며 民族主義 正統性은 独立的 主体性을 지향하는 民族集團의 意志를 具現하는 데서 統治의 正當性을 찾는 것이다.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말은 主로 民族主義 正統性을 뜻하는 것으로 理解되나 한가지 留意할 것은 이 세가지 類型의 正統性 가운데서도 民族主義正統性은 흔히 選舉的, 革命的 正統性과 結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뜻이 比較的 애매하다는 事實이다.

여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民族史的 正統性의 概念을 정리해두어야 할 必要性을 느낀다. 우선 우리가 考究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이기 때문에 韓國民族主義의 脈絡속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한다는 事實을 注目해야 한다. 그리고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지나치게 單純하고도 一面的으로 理解한 나머지 大韓民國이 大韓帝國과 上海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했다는 데서만 正統性을 찾으려는 單純化되고 一面的인 概念에 매어달리는 경향도 排除되어야만 한다. 보다 具體적으로 말해서 韓國民族主義의 諸局面에서 檢出되는 正統性의 여러가지 要因을 묶어 그것을 보다 包括的인 概念으로 理解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注意할 것은 民族史的 正統性이라는 것이 過去에 있었던 것만에서 檢出되는 것이 아니라 現在 있는 것에서도 檢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歷史를 하나의 繼續的 現象으로 理解한다면 大韓民國政府의 民族史的 正統性은 單純히 過去의 民族史的 遺産을 이어 받았다는 것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現在 그것이 지니고 있는 民族主義的 屬性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概念을 理解할때 한마디로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韓國의 民族史라는 脈絡속에서 나타나는 民族主義의 中核的인 諸傳統과 價値를 繼承, 具現함으로써 法的으로나 道德的으로 우리民族에 依해서 正當한 것으로 承認될수 있는 統治의 基礎的 名分을 뜻하게 된다.

Ⅲ. 韓國民族主義의 諸局面

韓國民族主義의 諸局面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韓國民族主義研究의 몇가지 接近方法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政治史的인 研究方法을 들수 있을 것 같다. 이 政治史的인 接近法에서는 주로 反封建, 反外勢의 民族主義運動을 追跡하는 方法을 따르는 것으로 19世紀 後半 開港 以來 展開된 여러가지 反封建運動에서 볼수 있다싶이 自主獨立, 自主富強한 近代國家를 形成하려는 運動,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으로서 日本帝國主義의 탄압과 착취로부터 國權을 回復하고 民族의 自主的 生存을 確保하려는 抗日獨立鬪爭運動史等を 中心으로 해서 研究하는 方法이다.

民族主義를 하나의 近代的 樣相으로 理解한다면 王朝中心의 封建的 政治秩序에서 脫皮하여 國民中心의 近代政治秩序를 創出하려는 運動이 대두한 때를 起點으로 하여 民族主義의 展開를 研究하는 것은 首肯이 가는 일이다. 日本民族主義 研究에 있어서 明治維新을 하나의 起點으로 잡고 中國民族主義 研究가 變法自強運動에서 그 起點을 잡는 것과 같은 理由에서 이다.

江華島條約에 依해서 鎖國의 벽이 무너지고 近代化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反封建的 政治改革의 運動들에서 近代的 民族主義의 發展이 始作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세계의 大勢에서 뒤쳐진 祖國을 일깨워 近代的 國民國家를 發展

시키려던 開化의 意志가 表現된 甲申政變, 對內的으로 封建的, 政治秩序의 破壞에 그리고 對外的으로 斥倭洋을 통한 民族自主의 確立에 그 目標을 두고 있던 東學革命, 그리고 獨立協會에 依한 改革的 開化運動, 外勢의 侵入과 彈壓에 抵抗하기 위한 近代의 國民으로서의 底力을 키우기 위한 愛國啓蒙運動 등에서 民族主義의 물결은 滔滔히 흐르고 있었다.

특히 韓國民族主義運動에서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은 日帝植民統治期間에 걸쳐 일어난 抗日獨立鬪爭運動이다. 初期의 義兵抗爭은 勿論이고 1919年 拳族的인 抗日獨立運動으로 일어난 3.1運動은 하나의 絶頂을 이룬다. 3.1運動은 하나의 劃期的 事件으로 그 以前까지 볼 수 있었던 여러가지 運動들이 어느 한 階層을 中心으로 일어난 運動이었거나 局地的 現象을 띠고 있었던데 反해서 이 運動은 모든 地域, 모든 階層이 한 덩어리가 된 拳族의 民族主義 運動이었다.

政治史的인 局面에서 民族主義를 다룰 때는 또하나 重要한 것으로 解放 以後 分斷의 歷史를 통해서 그 民族分斷의 悲劇을 克服하고 民族의 平和와 統一을 成就하려고 하는 韓國民族主義의 새로운 歷史를 考慮에 넣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近年 南北對話를 둘러싼 움직임도 여기에 包摂시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思想史的 研究方法이 있다. 이것은 知性史的 接近法으로서 民族主義를 民族國家의 主權과 國民福祉를 強調하는 思想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民族主義에 관한 古典的 研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方法으로 思想은 그 自体가 生命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思想은 旧思想의 子宮으로부터 出産된다는 前提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日本의 近代民族主義研究에 있어서 윌슨 (George M. Wilson)이 日本에 있어서 近代民族主義 意識은 이미 1868年 以前의 幕府後期時代의 和蘭學이나 實學派를 中心으로 하는 思想家들의 思想으로 부터 發展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 그 例이다.¹⁾ 韓國民族主義研究에 있어서도 이에 開港 훨씬 以前에 英正祖時代의 實學派思想에서부터 近代的 民族主義意識이 發展되었다고 보는 見解들은 곧 그러한 아푸로우치의 한 例가 될 것이다.

勿論 이러한 思想史的 아푸로우치에 대해서는 몇가지 批判이 있을 수 있다. 한스·콘 (Hans Kohn)이 民族主義를 「心性的 狀態」로 規定한 것과는 달리 그것이 社會變動過程에서 나타난 하나의 結果라고 볼때 그러한 思想史的 아푸로우치는 近代民族主義를 說明하는데는 스스로 制約을 가지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모든 階級の 多數 大衆이 心理적으로 民族國家에 歸屬意識을 느끼고 積極的 構成員으로 統合될만한 社會現實的 條件이 造成되지 않은 狀態에서 民族主義의 發展이 있을 수 없다는 社會學的 見解는 그나름대로 一理있는 것이나 이런 立場에서만 韓國民族主義를 論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解放 以後에서부터 近代的 民族主義의 發展이 始作된 것으로 볼수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심을

註1) George M. Wilson, Radical Nationalist in Japan, Kita Ikki, 1883-1937 (Cambridge, Mass., 1969) 參照

두고 있는 문제가 民族史的 正統性的 問題임으로 思想史的 局面을 度外視할 수 없으며 이 局面은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思想보다는 오히려 民族主義의 ダイナ믹스에 力點을 두고 機能的 接近法은 유럽 民族主義 研究에서 보다 큰 意味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 思想史的 局面에서 注目되어야 할 部分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政治思想과 社會經濟思想이다.

政治思想과 經濟思想을 통해서 民族固有의 傳統이 얼마나 繼承, 啓發되고 있으며 民族의 主權과 福祉를 支配的 價値로 하는 民族主義理念이 얼마나 包容되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民族史的 正統性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基準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는 文化史的인 接近方法이다. 文化라는 말부터가 相當히 包括的인 概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區別해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간단히 말해서 外來的 文化를 受用하고 消化하는 過程에서 우리 民族의 傳統的 文化價値體系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民族主義의 文化的 側面을 살피자는 것이다.

外來文化的 衝擊에 対応하는 데는 大體로 세가지 態度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아예 外來文化的 受容을 拒否하는 異花不姓의 態度이며 그 둘째는 外來文化를 受容하되 그 民族의 固有한 傳統 文化 啓發이라는 基礎 위에서 批判的이고 選擇的으로 受容하는 態度이고 그 세째는 自己의 傳統文化를 버리고 外來文化에 吸收되는 態度이다.

大體로 오늘의 新生國에 있어서는 어떤 體制를 莫論하고 두번째의 態度를 표방하고 있으나 異邦의 神話를 正當化하기 爲해서 自國文化의 傳統을 變造的으로 해석하고 適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明白히 區別해야 할 것이다.

네째로 利益說的인 接近方法이다. 卽 이것은 民族主義를 政府와 支配階級의 權力追求의 利益에 奉仕하는 理念的 道具로 보는 見解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본래 마르크시스트의 民族主義觀에 입각한 것으로 國家를 弱者階級의 착취를 위한 強者階級의 人爲的 착취道具로 보는 그들의 國家觀에 그 根拠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에리트의 利益에 奉仕하기 위한 傳統的 象徴의 操作에서 民族主義의 本質을 發見하는 이 見解에서는 民族主義의 政治的 道具로서의 性格을 浮刻시키는데 그 力點이 주어진다.

이러한 局面은 解放後의 南北韓間의 民族主義的 名分の 競争에서 露出되는 局面으로서 正統性問題와 관련하여 注目해야 할 一面이다.

더구나 오늘에 와서는 公共教育이나 集團媒体 그리고 兵役義務의 普遍化를 通해서 政府가 國民을 效果的으로 教化할 수 있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러한 局面은 더욱 重要性을 띠우고 있다.

어떤 體制이든 權力엘리트의 利益을 無視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어떤 理念이든 그러한 엘리트의 利益에 對한 奉仕의 役割이 없는 것으로 断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政略的 利益의 局面이 民族主義에서 지나치게 強化될

경우 民族主義正統性은 弱화되게 마련이다. 信念體系나 價値觀 體系에 있어서 民族主義와 調和될 수 없는 體制가 民族主義的 名分을 앞세울 때 民族主義는 政略的 道具의 性格으로 轉落한다.

統一에 對한 北韓의 態度에서 이러한 利益的 局面은 強하게 露出되고 있다.

IV. 北韓의 正統性概念圖式

北傀가 그 體制를 維持하기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正統性은 간략히 말해서 두가지 要素의 接合으로 構成되고 있다. 이 두가지 要素란 바로 맑스·레닌主義가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抗日鬪爭에서 形成된 金日成의 主体的 革命傳統이다.

教條的 共產主義體制인 北傀가 革命을 그 正統性의 根源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 만치 國際主義的 革命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主義에 그 體制의 正統性을 依存하는 것은 能히 理解될 수 있다.

그러나 民族史的 正統性을 내세우는데는 無理와 矛盾을 發見할 수 밖에 없다.

階級史觀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가 그것의 「안티테세」인 民族主義와 調和될 수 없다는 一般論的 觀點에서도 그 矛盾이 浮刻될 수 밖에 없는 것은 勿論이다. 1971年3月 第24次共產黨大會에서 行한 브레즈네프報告 가운데도 「修正主義와 民族主義에 反對하는 鬪爭이 共產黨의 重要한 課題」¹⁾ 라고 断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태여 이러한 一般論에 依存할 必要도 없이 外勢(蘇聯)에 依해서 育成하고 擢立되고 支援된 金日成勢力이 民族主義 正統性을

註1)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蘇聯의 아시아政策關係論調集 (1969-1974), 海外資料 第15輯, p.257.

앞세우는 것은 矛盾이요 歪曲일 수 밖에 없다.

北傀가 내세우는 民族史的 正統性은 抗日鬪爭에서 遂行한 金日成의 役割을 支配的인 것으로 誇張하는데서 그 基礎를 찾고 있다.

抗日武装鬪爭의 革命傳統은 金日成에 의해 創始되고 發展된 것으로 強調되고 있는 것이다. 丙寅洋擾와 東學革命의 「反帝·反封建鬪爭」의 傳統을 金日成의 家系가 이어 받고 있으며 抗日革命鬪爭에서 金日成이 核心的이고 独占的 役割을 行한 것으로 主張함으로써 抗日獨立鬪爭史를 歪曲하는데서 北傀政權의 正統性을 求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에 보면 「金日成을 수령으로 하기 이전에는 革命傳統이 있을 수 없었다」든가 「朝鮮革命의 전반이 모두 金日成이 抗日革命鬪爭時期에 이룩한 革命의 傳統을 뿌리로 해가지고 솟아났고 發展해온 것이다」 등의 말들을 읽을 수 있다.²⁾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革命傳統이란 것은 純粹한 民族主義的 抗日鬪爭의 傳統이 아니라 馬스·레닌主義의 異邦的 傳統의 強化라는 目的에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創始한 革命傳統에 관한 思想은 馬스·레닌主義의 寶物庫를 豊富히 하는데 이바지 했다」³⁾ 고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北傀가 말하는 革命이 反民族主義的 革命을 뜻한다는 것은 다음

註 2) 金日成의 革命傳統에 관해서는 極東問題研究所(複寫), 革命傳統講座-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1974.9) 參照

3) Ibid., p.29.

말에서도 分明히 들어나고 있다. 4)

「우리 黨과 人民이 이어 받은 빛나는 革命傳統은 金日成이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령도해 나가는 행적에서만 일어설수가 있다. 그 이전 시기에는 혁명전통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그 이전 시기에는 혁명전통이 있을 수 없었는가?

이런 問題가 나선다.

다시 말해서 우리 人民이 金日成을 수령으로 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가 조선혁명을 령도하기 전에는 어째서 혁명전통이 있을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통치하에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인민은 일찍부터 왜래 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해서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鬪爭을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어왔었다.

예를 들면 일제 침략자들이 조선을 강점하던 전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의병투쟁이라던가, 애국문화정치 운동이라던가, 독립군 운동과 같은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이 있었다.

이러한 의병투쟁이나 애국문화 정치 운동이라던가, 독립군 운동과 같은 말하자면 부르쵸아 민족운동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우리 黨과 인민이 이어 받을 만한 혁명전통이 이어질수가 없었다.

그것은 왜 그러하겠나?

김일성은 부르쵸아 민족운동 또는 3.1운동에 대하여 말하면서

註4) Ibid., pp. 31~32.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10월혁명이 일어난 2년후인 1919년에 일어난 전민족적 3.1운동은 조선인민의 애국적 투지와 혁명적 정력을 시위하고 일제 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면에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제한성과 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러면 어찌해서 부르조아 민족운동이 이러한 약점을 드러내게 된 것인가? 이런 것은 바로 부르조아 민족운동이라는 것이 본질상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혁명전통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계급적 성격을 띄는 것이다.]

위에서 보다 싶이 韓國獨立鬪爭史에서 極히 微微하고 애매한 地位밖에 갖고 있지 못한 金日成을 두고 마치 抗日革命이 그에게서 始作하고 그에게서 끝나는 것처럼 誇張하고 있는 것은 虛偽이며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3.1運動과 같은 劃期的 抗日民族主義運動의 意義를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데서도 北傀政權의 反民族主義的 性格을 充分히 發見할 수 있다. 3.1運動이 어느 한 階級만의 運動이 아니요 全民族의 超階級的 獨立運動이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資本家利益을 代辯하는 부르조아民族運動」이라고 斷定한 것은 民族보다 階級을 앞세우는 그들의 反民族的 도구마를 立証하는 것이다.

北傀의 資料에 따르면 金日成이 朝鮮人民革命軍을 組織하고 1930年代에 처음으로 祖国光復會 組織을 通하여 反日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함으로써 抗日武装鬪爭을 勝利에로 組織, 領導하고 祖国의 光復과

民族의 獨立을 이룩했다고 力說하고 있다. 5)

이러한 主張은 그가 抗日獨立鬪爭에서 中心的 役割을 遂行했을 뿐 아니라 民族主体勢力이 있음을 浮刻시키고자 하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나, 1945年 解放에 이르기까지 滿州에서 抗日게릴라 鬪爭을 指揮했다는 金日成 自身の 主張과는 달리 그가 2次大戰中 滿州를 떠나 러시아軍에 加担했으며 解放과 함께 러시아軍 少領으로 歸還했다는 說도 있다. 6) 이 說의 眞否는 아직 確認되지 않았으나 抗日鬪爭史에서 차지하는 金日成의 地位가 微微하고 모호한 것은 確實하다. 여러가지 証拠로 보아 金日成이 朝鮮共産党안에서 活躍했기 보다는 中國共産党이나 蘇聯共産党과 提携한 흔적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一切 外國勢力과의 관련성을 否認하고 일적부터 主体思想을 發展시킨 人物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의 民族主義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北傀政權 自體의 民族主義的 正統性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韓國獨立鬪爭史에서 民族主義勢力이 共産主義勢力 보다 훨씬 優越한 主流를 形成하고 있었다는 事實은 제쳐 놓고라도 金日成 一派는 共産主義勢力 가운데도 朝鮮共産党勢力이 아니라 外國共産党 勢

註5) 極東問題研究 革命歷史講座 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 (1974.6)
參照

註6) 金日成의 애매한 鬪爭經歷에 관해서는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art V. 參照

力에 예속된 非土着勢力이었다. 그 証拠로서 金日成은 解放直後の 時期를 통하여 曹晩植先生 밑에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들이 같이 構成하고 있던 「北朝鮮五道行政局」이나 朝鮮共産黨北朝鮮支部의 어느 한쪽에서도 確固한 拠點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金日成을 最高支配者로 하는 北傀共産主義體制가 그 틀을 잡기까지의 過程에서 決定的으로 作用한 것은 北韓駐屯 蘇聯軍 第28軍事集團司令官 스티코프 (T.F. Shtykov) 將軍의 支援이었다. 그의 執權은 蘇聯의 北韓支配를 위한 前衛로시의 効用 때문이었으며 이것은 그의 親蘇的 性向과 經歷의 結果였다. 그리고 그의 執權의 決定的 契機는 反托鬪爭을 통한 民族主義勢力의 去勢에서 주어졌다는 것도 始初에서 부터 그가 反民族的 勢力이었음을 斷적으로 立証하는 것이었다.

北傀體制의 起源에서 나타난 反民族的 性格은 그뒤의 發展過程에서도 如實히 들어났다. 그 하나가 6.25 動亂이라는 同族相殘의 悲劇을 그들이 演出했던 것이고 그 둘째가 南北間의 平和的 接觸과 交流에 對한 그들의 拒否的 態度이다.

1950年6月, 蘇聯과 中共의 支援밑에 金日成集團이 敢行한 武力南侵은 民族史上 類例없는 同族相殘을 3年餘나 끌게 했고 이것이 結果한 莫大한 人命과 財産의 損失은 우리 祖國을 荒廢化시켰을 뿐 더러 우리民族에게 이를데 없이 큰 犠牲을 안겨 줌으로써 우리 民族史에 一大 汚點을 남겼다. 民族의 生存과 繁榮에 拍逆하는 이 民族的 悲劇과 恥辱은 北傀의 反民族的 共產革命의 狂信과

罪惡을 証言하는 것이었다.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異邦的 神話를 爲해서 自己民族의 生存조차 미련없이 犧牲시키려고 했던 事實에서 볼때 그들에게서 民族主義的 道德性이 全혀 無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北對話에 對한 北傀의 拒否的 態度에서도 北傀体制의 그러한 性向은 明白히 露出되고 있다. 7.4 共同聲明은 韓半島問題에 關한 民族自主解決原則의 表現이었다. 이 共同聲明精神에 입각하여 南北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는 斷絶된 民族을 다시 잇고 統一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한 民族主義的 試圖를 實踐에 옮기기 위한 所重한 채널로서의 役割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北傀는 처음부터 오직 宣傳과 政略의 目的으로 南北對話에 臨했고 이것이 成熟되고 進展될 경우 그들 金日成 唯一体制의 弛緩 乃至 崩壞가 結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南北對話를 意識的으로 忌避하고 拒否하는 態度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 拒否的 反應의 底辺에는 民族的 平和統一이 아니라 共產武力革命의 條件을 造成하려는 意圖가 潛在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祖國의 統一을 民族史的 課業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共產主義世界革命의 一環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反民族主義的 傾向을 立証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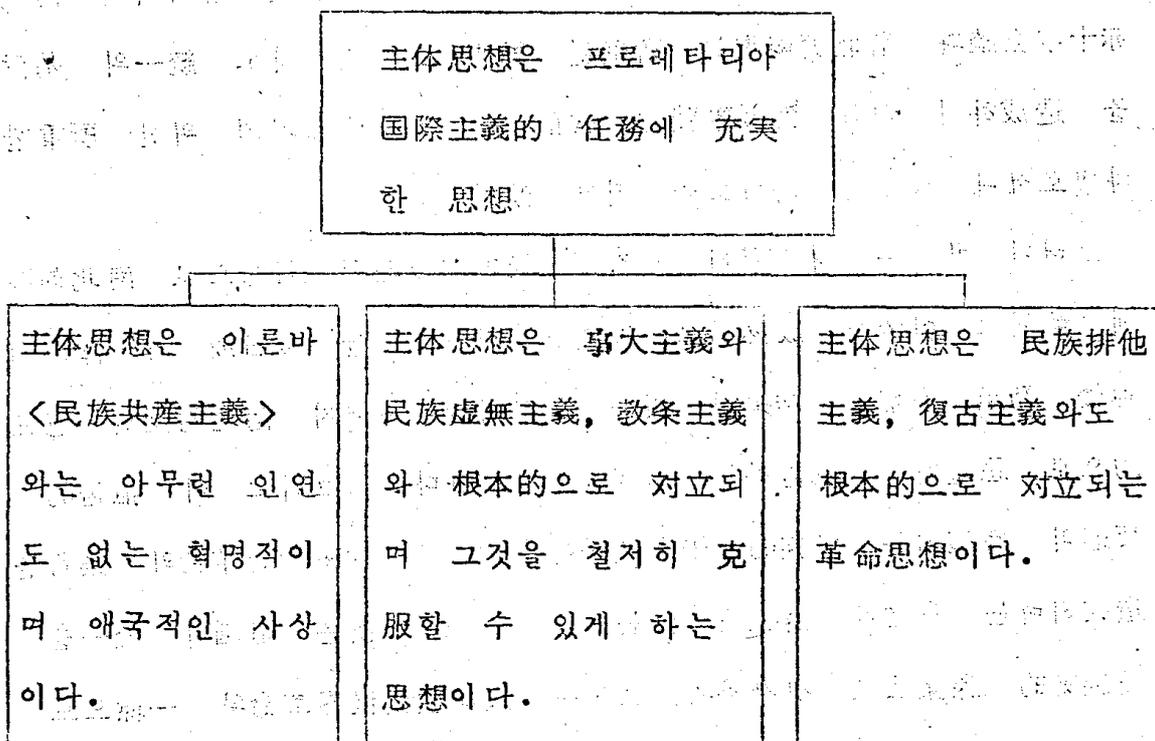
思想史的인 視角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北傀의 共產主義와 主体思想은 民族思想의 傳統과는 連結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思想的 斷絶을 發見할 수 있다.

朝鮮大學 教材를 보면 그들의 主体思想을 獨創的인 것이라고 表

現하는 한편 「主体思想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的 任務에 充實한 思想이다」라고 前提하고 「우리가 말하는 主体思想은 國際主義와 矛盾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國際主義를 強化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金日成의 말을 引用하고 있다. 7)

그리고 이 教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圖式을 提示하고 있다.

圖 表



위의 圖式은 北傀의 主体思想에 대한 一部の 誤解 즉 그것이 民族共產主義의 一形態라는 생각을 訂正해 주기에 足한 것이다.

여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그들의 主体思想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

註7) 金日成主義學習內容體系圖(朝鮮大學教材)參照

義에 充實한 思想이며 나아가서는 이 國際主義를 強化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指摘한 브레즈네프의 말대로 修正主義와 民族主義는 오늘의 共產主義者들에게 最大의 敵으로 看做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思想이 民族主義正統性을 主張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北傀는 金日成의 主体思想이 金日成의 抗日鬪爭初期에 創始되었고 歴史的으로 내려온 事大主義 教條主義로부터 人民의 完全한 精神的 解放을 成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思想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賦與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歪曲된 自己正當化의 냄새를 짚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性格이 무엇이나에 관해서는 國內外學者들간 에 여러가지 論議가 있다.⁸⁾ 或者는 그것을 抵抗的 民族主義의 한 形態로 해석한 것을 볼 수 있기도 하나 가장 支配的인 見解는 中·蘇紛爭이라는 社會主義圈內的 變化에 對한 適應과 對內的으

註8) 이러한 論議들에 관해서는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A. Doak Barnett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F.A. Praeger, 1963) B.C. Koh. "Chuche Song in Korean Politic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VII, Nos. 1 and 2 (1974) Gregory F. T. Winn. "Ideology and Reality in Korean Behaviour,"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VII, Nos. 1 and 2. (1974) 等 參照

로 金日成 構力体制의 確立과 維持의 動機와 관련시켜 그 性格을 해석하고 있다.

이 主体思想의 正統性を 補強하기 위하여 社会經濟思想과 文化史的 側面에서 民族的 傳統을 계승하고 啓發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主張하고 있다.

金日成은 民族文化遺産의 繼承發展은 社会主義文化建設의 本質에 根拠한 要求이며 合法則的인 要求에 따라 文化를 建設하려고 하면 他国 他民族의 文化遺産이 아니고 自国, 自民族의 優秀한 文化遺産을 繼承 發展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어 民族文化遺産의 繼承發展은 또 社会主義文化의 民族的 形式과 社会主義的 內容을 結合시키는 데서 重要한 問題가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⁹⁾

가령 社会經濟思想의 分野에서 보더라도 「마르크시즘」의 正當性을 우리 歷史上의 많은 人物들의 思想을 引用해서 立證하려 하고 있다. 韓國史에 관한 그들의 全적으로 歪曲된 해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거나 어디까지나 歷史的 唯物論의 짜여진 史觀과 分析의 틀위에서 韓國史를 變造한 것을 볼 수 있다.

그한 例로 그들이 쓴 朝鮮經濟思想史¹⁰⁾ 를 보면 그런 흔적이 역역히 나타나고 있다. 그 序文에서 「이 著書는 우리 나라 經濟사상의 발전을 역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에 입각하여 체계적

註9) 極東問題研究所,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1974.3) pp.58~56.

10) 김광진, 김광순, 변락주 共著 朝鮮經濟사상사(평양:과학원출판사, 1963)가 곧 그것이다.

으로 概括할 것을 시도하였다」고 明記하고 있다. 麗末 주로 私田改革에 관심을 表했던 李齊賢等 儒學者들의 排佛思想은 唯物論的 辯証法的 思想의 萌芽 처럼 해석하고 있으며 이들 유학자들을 改革論者로 일컬고 있다. 特히 麗末思想家로서는 鄭道傳을 極讚하고 있는데 그의 「佛氏雜辯」·「心氣理篇」·「心問天答」等 著述에서 「일련의 貴重한 唯物論的, 辯証法的 見解들을 展開하였다」¹⁰⁾고 評하고 있다.

그리고 李朝史에 있어서도 金時習을 비롯한 많은 人物들을 唯物論的 立場을 取했던 思想家들처럼 浮刻시키고 있다. 金時習의 「爲治必法三代論」을 唯物的 立場에서 서술된 것이라고 해석했고 심지어 金時習을 先進的 社會經濟思想을 가진 人民革命의 鼓舞者로 까지 만들고 있다.¹²⁾

그밖에도 趙先祖, 韓忠, 奇遵, 李珥, 徐敬德 등의 諸儒學者들을 唯物的 經濟社會思想을 가진 人物들로 評價하고 있으며 洪大容 朴趾源 등의 實學派를 치켜 세우고 있는 反面 退溪, 李滉을 朱子의 教理를 教條主義的으로 引用한 依樣之味가 많은 反動的 學者로 罵倒하고 있다. 退溪의 學問과 思想이 日本까지 傳播되어 理學之宗으로 崇仰됨으로써 韓民族의 國際的 威信을 높이는데 寄與했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두고 그들은 「國際的 규모에서 反動思想의 괴수의 役割을 遂行하였다」¹³⁾고 極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註11) 上揭書, p.54.

12) 上揭書, pp. 96~107 參照

13) 上揭書, p.125

勿論 李退溪와 위에서 列举된 他儒学者들 사이에 學問이나 思想 傾向의 差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같이 儒学者들일 뿐더러 皆 學가 倫理를 重視한 人物들이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들을 마치 唯物論者인 것처럼 끌어드리고 있는 것은 牽強附會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北傀가 唯物論的 思想家로 치켜 세운 이들 麗末 및 李朝 儒学者들 가운데는 空理空論에 치우쳤던 당시의 儒學的 風土에서 보면 實踐과 改革을 相對的으로 強調하는 경향이 強했던 人物들이 많았으나 그 實踐과 改革은 어디까지나 儒敎的 倫理와 社會秩序의 保存을 前提로 한 것이었으며 治者의 옳바른 道理와 愛民의 當爲性을 깨우치려고 하던 漸進的 改革을 이야기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決코 唯物的 性向을 가진 階級革命의 鼓吹者들은 아니었다.

더구나 既存秩序와 既存價値의 全面的 否定 위에 構築된 共產主義體制에서 傳統的 價値樣態가 受容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韓末 以來 고개를 들었고 3.1 運動을 계기로 뚜렷하게 表現된 社會, 經濟的 民族主義와 自由主義의 思想的 傳統이 그들의 唯物的, 階段的 社會·經濟思想과 不합되지 않음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끝으로 文化史的 局面에서 약간 덧붙인다면 金日成體制의 文化觀이나 文化政策은 民族文化의 傳統과 背馳되는 傳統斷絶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日帝下에서 꾸준히 發展시켜온 우리 民族文化 民族文學藝術의 高貴한 傳統을 正面으로 否定하고 그들의 馬克思的 異邦文化의 受容을 強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金日成은 1951年6月30日 作家·藝術家들과의 談話에서 「조국해방戰爭期間에 우리의 作家·藝術家들은 많은 文學藝術作品을 創作하였으나 그것들을 思想的 內容으로 보나 藝術性으로 보나 英雄的 우리 人民이 應當히 가져야 할 그러한 作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¹⁴⁾고 말함으로써 抗日民族文化의 傳統에 對한 露骨的 否定的 態度를 明示하고 있다.

註14) 極東問題研究所,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1974.3) p.181.

V.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構成하는 諸要因

1. 政治史的 局面

韓末 以來 政治的 改革이나 外勢에의 抗拒를 爲한 運動은 많았다. 甲申政變, 衛正斥邪運動, 東學革命, 甲午更張, 義兵運動, 獨立協會의 協議開設運動¹⁾, 新民會를 中心으로 한 愛國啓蒙運動等은 곧 그 例에 屬한다.

그러나 近代的 民族意識에 立脚한 全民族的 抗日民衆運動은 3.1 運動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 以前까지 展開되어 온 改革과 外勢排斥을 爲한 갖가지 形態의 運動들에서 나타난 民族主義的 氣運의 集約的 表現이며 世界進運에 발맞춘 近代的 民族, 民主運動이었다.

우리 憲法前文에도 明白히 했듯이 大韓民國은 3.1 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한 데서 正統性이 重要的 根柢를 求하고 있다.

註1) 光武 2年 (1898) 獨立協會가 서울에서 「萬民共同會」의 大衆集會를 열어 「外國人에게 依支치 아니하고.....」云云의 對政府建議 6個條를 採択하였을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中樞院官制改正草案까지 獨立協會가 作成하여 政府에 累次 建議한 結果, 光武 2年 11月 2日 勅令第 36 号가 頒布되었으나 이것은 中樞院議官半數를 人民選舉에 依한다고 함으로써 立憲君主制를 前提로한 初期形態의 議會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震檀學會, 韓國史 現代篇 (乙酉文化, 1966), pp.870~875 參照

이것은 北傀가 3.1 運動을 「資本家利益을 代弁하는 뿌루조아民族 運動」이라고 断定함으로써 否定的 評價를 내리고 眞正한 革命傳統은 오직 金日成에게서 始作한다는 立場과는 正面으로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3.1 運動의 性格과 意義에 대한 評價이다. 이 評價에 따라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的 重要한 基盤이 成立할 수 있는가의 與否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특히 北傀가 그것을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點에 비추어 이 運動에 對한 客觀的 評價는 南北韓 가운데 果然 어느쪽이 그러한 正統性을 가지고 있는지를 判別하는데 重大한 判官이 될 것이다.

이 評價에 있어서는 3.1 運動의 民族史的 世界史的 背景과 그 運動의 目標 그리고 그 運動의 主動勢力의 構成 및 그 影響을 考察하는 것이 必要하다.

3.1 運動은 日帝에 依하여 強要된 不平等條約이었던 1876 年の 江華島條約締結 以來 日益 露骨化되어 온 日本帝國主義侵略에 對한 韓民族의 強烈한 抗日鬪爭展開運動의 한 結果였었고 加하여는 1910 年 韓日合邦 以來 強化되었던 日帝武斷統治에 抗拒한 拳族의 獨立鬪爭이었으며 世界 1 次大戰 以後 全世界的으로 미만되었던 民族主義 氣運과 추세 가운데서 일어난 民族의 主權과 獨立을 회복하기 위한 運動이었다.

1 次大戰後 유럽을 中心으로 高調되기 시작한 民族主義氣運은 비록 一部 階層에게만 感知되었다고 하더라도 國內적으로 조여 들었

던 日帝의 触手는 모든 地域의 모든 國民大衆에 依하여 充分히 感知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日本은 韓日合邦 훨씬以前부터 經濟的 浸透와 政治的 干涉의 魔手를 뻗쳐 왔던 것으로 租界設置, 海外法權, 海岸測量, 輸出稅免除, 獨自貿易等의 一方的 特權아래 掠奪의인 貿易活動을 展開했고 軍事의 手段에 밑받침된 內政干涉의 政治的 陰謀를 通해서 韓國의 獨立을 保全한다는 欺瞞的 名分아래 國權을 잠식해 들어 왔으며 淸日戰爭에서의 勝利를 契機로 이러한 浸透와 強圧은 한層 強化되어 「興亞」의 偽善的 名分아래 日本은 韓國市場에 대한 獨占的 經濟進出뿐만이 아니라 國內政治勢力의 奸狡한 조종을 通하여 帝國主義的 侵略의 確固한 발판을 굳혔다.

第1次 韓日協約에서 顧問政治를 確立한 日帝는 第2次 韓日協約 (乙巳保護條約)에 이르러 總督府의 設置를 通해서 韓國의 實質的 統治權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日帝의 浸透에 對한 民衆과 指導層의 憤怒는 張志淵의 「是日也 放聲大哭」, 全國儒生의 痛切한 上疏, 愛國志士의 自決殉國, 東學接主와 農民의 憤然한 蜂起에서 잘 表現되고 있었다. 이렇듯해서 日帝勢力의 浸透에 對한 抵抗은 儒生→軍卒→農民으로 번져갔고 또한 上疏運動→襲擊→武力鬪爭으로 激化되어 갔던 것이다.²⁾

韓日合邦 以後 日帝는 總督府를 設置하고 陸軍大臣 寺內正毅의

註2) 韓右勳, "3.1運動의 歷史的 背景", 3.1運動 50周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p.19에서 引用

總督就任을 契機로 憲兵警察組織의 強化를 통한 武斷統治를 強化함
으로써 民族的 憤怒와 抵抗을 한층 더 刺戟하기에 이르렀다.

湖南地方의 「獨立義軍府」와 嶺南地方의 「大韓光復團」, 平安道地
方의 抗日基督教勢力과 「新民會」의 組織, 그리고 國外로의 亡命抗
日運動의 擴散等은 國權恢復을 爲한 抵抗運動들이 었다.

이렇게 蓄積된 抗日鬪爭의 感情과 意志가 全國的 規模에서 舉族
的으로 폭발된 것이 바로 3.1 運動이었었다. 여기에는 階層의 區
別이 있을 수 없었고 階級的 利益의 偏向的 擁護가 있을 수 없
었으며 地方의 區別이 있을 수 없었다. 亡國의 痛憤과 抗日의
意志는 서울의 四大夫로부터 僻地의 匹夫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
은데가 없었다.

우선 3.1 運動의 主導勢力을 보면 獨立宣言書에 署名한 天道敎側
人士, 基督教側人士, 仏敎側人士等 宗教團體勢力과 宣言書에 署名은
하지 않았지만 3.1 運動舉事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担当한 學園
勢力을 包含하여 大體로 四 系統으로 나누어진다.³⁾ 이 主導勢
力의 社會的 身分을 보면 大體로 新敎育을 받은 知識階級이며 또
한 商工業에 從事하는 中産層의 性格이 強하다는 事實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北韓에서는 3.1 運動이 뿌루조아民族運動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留意

註 3) 朴漢尙, "3.1 運動主導體 形成에 관한 考察",
前掲書, pp. 189 ~ 201 參照

해야 될 事實은 첫째로 日帝武断政治에 依해서 모든 政治, 社会团体가 解体되고 오직 宗教团体와 教育機關만이 남았기 때문에 大衆動員의 役割을 할 수 있는 組織은 宗教와 学園团体밖에 없었으며 둘째로 主尊者들이 비록 新興産業에 關聯된 中産層이라고 할지라도 國權恢復 以外에 具體的인 階級的 政治目的을 노린 것은 아니었으며 셋째로 이 運動은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오래동안 社会全体에 蓄積되고 미만된 抗日民族感情의 反映이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이 運動의 参与範圍가 階層과 地域에 局限되지 않는 全民族的인 것이었다는 것은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 之血史」에서 나타나는 統計에서도 立証되고 있다. 이 統計에 따르면 1919年 3月1日~5月末 期間에 이 運動에 参与한 府郡 211, 会集回数 1542, 会集人数 202萬3098, 死亡 7509, 被傷 1萬5961이었으며 그 地域的 規模에 있어서도 韓國全城 및 西北間島와 樺太島까지 걸쳐 있었다.

또 参加者가 階層的으로 広範圍하다는 것은 總督府의 한 史料에서도 立証되고 있다. ⁴⁾ 被囚人員 1萬9525人中 學生은 除外하면 學校教員 419, 面里長, 面書記 204, 官公署 会社員 141, 醫師 81, 代書 25, 僧侶 120, 基督教牧師, 教師, 長老 244, 天道教關係 125,

註 4) 이 史料는 朝鮮總督府官房庶務部調查課, 朝鮮獨立運動思想 及 運動 (調查資料 第10輯, 1924.)를 말하며 以下 計數는 上掲書 p. 608에서 再引用

公務自由業 456, 農業 1萬 864, 商業 1624, 漁業 50, 鉞業冶金, 一般製造, 土木建築, 印刷, 写真, 理髮業等 14種 65, 婢僕日傭 744, 勞動者 254, 無職 1128, 未詳 555 로 나타나고 있다.

被囚人은 또 宗教面에서 国内各宗教信者들로부터 無宗教者에 이르기까지, 知識程度에 있어서 高等教育履修者로부터 文盲에 이르기까지 實로 各界各層의 多様하고도 広範圍한 構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3.1 運動이 어느 한 階級の 感情이나 利益의 表現이 아니라 實로 純粹하고도 拳族的인 抗日民族主義運動이었음을 雄弁하는 것으로 「뿌루초아의 民族運動」이 아님은 물론 「프로레타리아解放運動」은 더욱이나 아니었다.

따라서 이 純粹한 民族主義運動의 精神을 大韓民國이 그 憲法의 基本理念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民族史的 正統性的 重要한 構成要素가 된다.

그리고 3.1 運動은 그뒤의 大韓民國臨時政府와 갖가지 獨立運動을 産出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여기에서 또하나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政治史的 側面에서 大韓民國의 正統성을 賦与하는 重大한 根拠를 上海臨時政府에서 찾을 수 있다는 事實이다. 우리나라의 48年憲法前文에 보면 「己未 3.1 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계승하여」 民主國家를 再建한 것이 곧 大韓民國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곧 大韓民國政府가 大韓民國臨時政府를 계승한 正統的 政府라는 事實을 強調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大韓民國臨時政府는 3.1 運動을 契機로 그것과 거의 同時적으로 誕生한 俄領, 漢城의 兩臨時政府를 1919年 9月 自体改造의 形式으로 吸收, 統合함으로써 單一臨時政府로서 正統性을 確立하였다.⁵⁾

北傀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民族獨立運動中核체로서의 正統性을 正面向으로 否定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것이 正統唯一政府요 大韓民國政府의 起源으로 主張하고 있는 것은 確然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韓國民族의 獨立運動推進中核체로서의 正統性을 가진 것이었던가의 與否를 가름하는 것은 우리 大韓民國의 正統性과 重大한 關係를 가진 問題로 생각된다.

3.1 運動으로부터 6 個月餘의 陣痛끝에 誕生한 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45年 11月 解放된 祖國에 還國할때까지 27年동안 숙한 對內, 對外的 挑戰과 試鍊을 겪기는 했으나 民族獨立運動의 本部로 또는 正統的 代表機關으로 存続해온 것이다. 日帝의 妨害도 對外的으로 큰 障礙였지만 内部로도 指導人士間의 알력이나 法統論 挑戰, 심지어는 臨時政府廢止論과 같은 試鍊을 겪었으나 그것을 克服하고 正統機構로서의 命脈을 維持하는데는 成功한 것이었다.

有名, 無名 또는 작고 큰 갖가지 獨立運動團體가 外國과 國內에

註 5) 臨時政府의 統合經緯와 그 指導體系에 관해서는 上揭書, pp.893~906 의 洪淳鉦 "漢城, 上海, 露領 臨時政府의 統合過程" 및 上揭書, pp.907~933 의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參照.

散在했으나 上海臨時政府는 가장 일찍 主要獨立運動推進機構를 統合한 가장 代表的인 統合體였으며 그 人的 構成에 있어서도 民族獨立運動의 代表的 指導者를 거의 網羅한 機構였다. 例舉하면 李承晚, 李東寧, 朴殷植, 李相龍, 홍진, 金九, 金奎植, 李始榮, 安昌浩, 盧伯璣, 趙素昂, 李東輝等 쟁쟁한 民族運動指導者들이 集合되어 構成한 臨政은 그 人脈에서도 可히 民族의 代表的 機構로서의 體貌를 갖춘 것이었다. 그리고 그 人物들의 皆拳가 民族主義的 性向의 人物이었다.

臨政은 支離滅裂하고 蘇聯의 不信까지 산 朝鮮共産黨에 훨씬 앞서 國內外 獨立運動을 統轄하는 中樞的 役割을 遂行했으며 韓國民族運動의 심볼로서의 地位를 존했다. 그리고 外國이나 國際聯盟을 相對로 한 外交活動에 있어서도 中心的 機構였었으며 對外的으로도 가장 널리 認知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解放後의 政治史를 살펴 보더라도 大韓民國은 同族相殘을 犯한 北傀와는 달리 그것을 沮止하고 平和的 統一에 依하여 民族의 自主성과 生存, 그리고 繁榮을 追求해온 體制이다. 그 斷的인 例의 하나로 南北對話推進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와 誠實性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大韓民國의 民族主義正統性을 더욱 強化시켜준 要因이었다.

北傀의 修辭的 偽裝과는 달리 大韓民國은 實踐的 態度로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에 主導的 役割을 遂行했고 1972年 李厚洛 前中央情報部長을 派遣하여 交涉을 推進함으로써 同年 7月 4日 「祖國平

和自立統一原則」에 관한 南北共同聲明을 發表케 하였다. 이 7.4 共同聲明은 民族自主的 韓半島問題解決原則을 提示한 劃期的 意義를 가진 것으로 大韓民國의 民族主義的 意志를 表現한 것이었다. 平壤側이 1973年 8月 28日 金英柱聲明을 通해서, 對話의, 一方的, 中斷을 宣言함으로써 7.4 共同聲明을 正面으로 유란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政府는 對話의 再開를 위한 努力을 계속함으로써 民族主義正統性을 立証해 주었다.

2. 思想史的 局面

大韓民國憲法에 나타난 基本理念은 짧게 말해서 民族主義, 民主主義, 國際平和主義이다.

封建的 惡習을 打破하려는 努力은 李朝後期 實學派의 思想에서 부터 이미 보이고 있다. 李朝 兩班社會의 痼疾의 病廢와 儒敎論理의 頹廢相을 批判하고 制度的 改革을 主張했던 實學派는 그 當時로서는 아시아的 時勢에 比較的 敏感한 感覺을 가지고 있었던 改革的 人士들이었다.

實學派에게서 端緒를 들어내기 始作한 이러한 思想은 強要된 開港 以來 고개를 쳐든 反封建, 反外勢의 諸運動에서 좀더 強하게 表現되고 있으며 3.1 運動思想에 이르러서는 民族의 自主와 福祉에 對한 明白한 思想的 關心을 읽을 수 있다.

3.1 運動思想에서는 日本帝國主義에의 抗爭에서 길러진 強烈한 民族主義意識과 함께 밖으로부터 들어온 西歐의 近代的 民主主義思想

이 集約적으로 表現되고 있다. 3.1 運動은 비단 하나의 政治的 運動이라는 次元에서만 아니라 韓國의 民族, 民主思想의 發興에서 하나의 分水嶺을 이루고 있다는데서도 더할 수 없이 큰 意義를 갖고 있다.

洪以燮教授가 適切히 指摘했듯이 「1876年 日本과의 条約締結에 있어 斥和論에 보인 意識에서부터, 朴殷植先生이 「革命」이라고 指稱한 甲申年 開化派의 政治的 구태타, 1894年 甲午東學徒를 中心한 農民戰爭의 經驗, 1896年 以後의 獨立協會의 活動 即 徐載弼을 위주한 獨立運動에 있어 國權論的인 國家意識과 民權思想, 日帝 侵略에 抗爭한 儒家의 指導的인 精神과 多大數 農民과 軍人들의 決死的 鬪爭과 指導的 知識層(儒敎的 知識基盤위에 受容된 西歐的 近代思想-資本主義的 國家, 民權에 開眼한)의 國權喪失에 對한 自決 殉死等의 諸精神이 民族的 生存을 위한 民族的 獨立, 自由에 焦點을 두고 3.1 運動에서 集約化 되었다. ⁶⁾」

3.1 運動思想을 或 어떤 目的意識에서 歪曲解釋하려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3.1 運動 民族·民主精神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3.1 獨立宣言에 앞서 나온 日本留學生에 依해서 發表된 「2.8 宣言」에 보면 「最後 東洋平和의 見地로 보건대 威脅이던 俄國은 이미 軍國主義的 野心을 拋棄하고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 한 新國家의 建設에 從事하는 中이며.....」云云하는 句節이 있어

註 6) 洪以燮, "3.1 運動의 思想史的 位置", 上揭書, p.614 에서 引用

이것이 가끔 俄羅斯의 볼셰비키政權에 同調하는 社會主義的 傾向으로 誤認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當時 西歐에도 있었던 러씨아革命의 性格에 관한 誤解에서 나온 것이며 日本帝國主義에 對한 反抗의 論理를 마르크스主義의 反帝國主義論에서 생각없이 빌려오 한 데 不過했다. 그 証拠로 同宣言에서는 「世界改造의 主人되는 美와 英은.....」云云함으로써 西歐民主主義國家에 對한 期待를 表示하고 있었던 點이다.

바로 3.1 運動의 民族, 民主思想이 大韓民國의 建國理念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며 現在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非但 政治思想의 側面에서만 아니라 社會, 經濟思想의 側面에서도 自由主義的이고 民族主義的 思想의 傳統이 大韓民國에 傳承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李朝後期 以來 封建的 社會, 經濟秩序의 分解過程에서 나타난 開化期의 富國強兵論, 甲午更張, 光武改革에 있어서의 殖產興業政策과 星田事業, 그리고 光武末期의 教育運動 및 産業運動의 發興은 社會經濟的 民族主義와 反封建的 自由主義의 運動으로서 이것이 日帝統治下에서 土地調查事業, 會社令, 貨弊改革, 日貨浸透라는 收奪的 植民主義經濟政策으로 潛伏하기는 하였어도 3.1 運動에 依하여 다시 刺戟을 받았으며 그러한 經濟的, 社會的 民族主義氣運은 그 命脈을

註 7) 韓末以來의 社會, 經濟思想에 關해서는 : 金永鎬, " 3.1 運動에 나타난 經濟的 民族主義 ", 上揭書, pp.641~658 參照

綿綿히 이어온 것이다.

3.1 運動에서 表面化되고 再強調된 經濟, 社会的 民族主義運動과 思想은 韓國商人들의 「京城市 商民一同公約書」 등에서 나타난 商人들의 閉店撤市運動, 兼二浦製鐵所韓人勞動者罷業에 뒤따른 勞動者의 全国的 罷業示威運動, 朝鮮獨立團의 「公約書」에 鼓舞된 納稅拒否運動, 民族資本家の 土地調查事業에 대한 抗拒를 表示한 日本人所有土地의 買収運動, 日貨不買運動과 日人에 대한 商品不売運動, 韓國의 經濟的 近代화와 自立에의 民族的 意志를 보인 物産獎勵運動, 消費節約運動, 民族資本蓄積을 위한 民族企業建設運動, 그리고 反植民地的 民族主義教育和 近代市民社會의 啓蒙教育을 爲한 教育普及運動 등에서 그러한 社會 經濟思想은 明白하게 表現되었다.

이 社會 經濟的 民族主義와 自由主義의 傳統은 抵抗의 民族主義가 떠기 쉬운 反動的 復古나 過激한 全体主義와의 野合이라는 性格에서 벗어나 건전한 民主, 民族的 思想의 地盤을 굳힌 것이며 이 地盤을 계승, 發展시키고 있는 것이 大韓民國이며 그 土壤위에서 우리 經濟와 社會는 成長하고 있는 것이다.

3. 文化史的 局面

南北韓이 다 같이 民族文化의 傳承과 啓發을 내세우고 있는 形便임으로 과연 어느쪽이 眞實인가를 判別하는 것은 民族史的 正統性의 文化的 局面과 關聯하여 重要的 意味를 갖게 된다.

이 問題에 관한 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韓의 文化의

概念이나 性格上的 差異부터 究明하는 것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全体主義者들의 基本的 態度와 信念에 따르면 文化는 功利的이고 도 政治道具의인 性格과 訣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령 藝術의 경우를 보면 「藝術은 審美的 立場에서가 아니라 功利的 立場에서 概念되고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社會를 形成하는 道具로 생각되고 있다. 8)」藝術의 審美的 性格에 對한 지나친 蔑시와 功利的 性格에 對한 지나친 強調은 一般的인 文化的 타락을 結果하게 마련이다. 1934年 蘇聯에서는 소비에트藝術의 樣式을 「社會主義的 리얼리즘」으로 宣言했는데 이것은 人民과 프로레타리아階級을 革命的 發展過程에서 政治的으로 教育시킬 수 있는 文化活動樣式을 말한다.

金日成 體制에 있어서도 이러한 社會主義的 리얼리즘 위에서 文化 政策을 展開하고 있으며 藝術家나 作家를 스탈린의 定義를 모방하여 「人間精神의 技士」⁹⁾로 단정하고 프로레타리아獨裁秩序의 強化에 奉仕할 수 있는 政治道具의 性格의 文化를 強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比해서 大韓民國에서는 純粹한 民族文化의 傳統을

註8)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p.329.

註9) 極東問題研究所,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1974.3) p.181.

發展的으로 계승, 啓發하고 있으며 特히 日帝期에 걸러진 抗日民族 文化的 命脈을 이어받고 있다. 훨씬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金 日成은 抗日民族文學을 露骨的으로 멸시하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 이다.

우리는 日帝時代를 通하여 걸러진 民族言論, 民族文學, 民族藝術의 傳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꿔나감으로써 文化的 正 統性의 基盤을 굳히고 있다.

우리 文化史에 있어서도 3.1 運動은 하나의 劃期的 分水嶺을 이 루고 있는데 이 運動을 契機로 可히 文芸復興이라고 表現할만한 新文化運動이 展開된 것이었다. 이러한 新文化運動은 새로운 民族 主義發展의 肥沃한 精神的 土壤을 提供한 것으로 19世紀末, 20世 紀初에 걸쳐 일어난 印度民族主義의 契機가 된 「힌두·르네상스」나 아랍民族主義의 「아랍·르네상스」와 같은 歷史的 意義를 가진 것 이었다.

現在 韓國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民族文化의 振興課業도 民族文化 遺産의 發展的 계승과 啓發을 爲한 運動의 하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마르크시슴이라는 異邦的 神話와 價值體系의 扶植을 爲해 서 自國文化 傳統을 變造的으로 해석, 적용하는 北傀의 경우와는 明白히 對照를 이루고 있다.

4. 利益的 局面

民族主義가 國民大衆과 指導層의 信念體系속에 定着되지 못하고 한낱 支配者의 權力追求의 利益을 위하여 動員되는 理念的 武器로 軋落한다면 그러한 體制는 적어도 民族主義正統性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免하기 힘들다.

北傀는 프롤레타리아革命志向 體制이기 때문에 自然히 體制正統性의 主宗은 革命的 正統性 (revolutionary legitimacy)이지 民族主義正統性 (nationalist legitimacy)은 아니다. 따라서 北傀의 革命的 正統性의 源泉은 全体主義的인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이데올로기이지 民主的 民族主義理念이 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民族史的 正統性에 對한 主張은 多分히 共產支配集團의 利益에 奉仕하는 道具的 性格을 갖게 마련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民族主義는 그들의 共產革命戰略을 위한 偽裝的 名分으로 操作되고 動員될 뿐이다. 본래 마르크시즘은 民族主義의 「안티레-세」임을 아무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民族主義는 우리의 信念體系와 價值觀속 에 定着되고 있으며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理念的 調和는 당연한 것이다. 韓國의 경우 反封建的 民主化와 抗日的 近代民族主義는 거의 同時的으로 生起되고 그 發展過程에 있어서 相互補完的 關係에 있었다. 팻시스트的인 日帝統治에 對한 抵抗은 民族獨立鬪爭이었던 同時에 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한 鬪爭이었다. 마이네케의 表現을 必 必要도 없이 民主主義와 民族主義는 하나의 胎內에서

나온 雙生児였다.

3.1 運動이 그랬고 上海臨時政府가 그랬고 또한 大韓民國이 그렇듯이 民主民族의 理念은 綿綿히 이어지고 있다.

大韓民國憲法前文이 民主主義와 함께 民族主義의 理念을 提示하고 있는 것도 大韓民國 誕生의 歷史的 背景을 理解한다면 決코 不自然스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民族主義는 體質的인 것이고 信念이고 價值이지 便宜的인 理念的 道具는 아니다.

브레즈네프가 民族主義的 傾向을 公公연히 규탄하는 것이나 또는 金日成이 民族共產主義를 排擊한 事實에서도 共產主義國家들에 있어서는 民族主義가 曷쓰의 말 그대로 支配階級의 利益에 奉仕하는 理念的 道具이지 決코 그것이 信念이나 本質이 될 수 없다.

따라서 利益說的인 局面에서 南北韓을 比較할 때 北傀는 民族主義에 對한 態度에 있어서 大韓民國보다 훨씬 더 功利的이며 조종적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오래고 確固한 民族主義的 傳統의 基盤위에 세워진 大韓民國이 民族主義 正統性에 있어서 보다 優越한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VI . 結 論

위에서 본대로 民族史的 正統性은 一面的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過去와 現在를 있는 民族史的 繼續性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政治体制의 統治의 正統性이 指導者에 依해서 確信되고 一般國民의 承認을 얻는 根源이 어느 한가지 要因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 본것은 法一記述的인 視角에서가 아니라 주로 規範的 道德的 視角에서 본 正統性이며 또한 民族史的 脈絡에서 본 正統性이었다.

우리 民族史를 통하여 凝固된 民族的 傳統과 價值는 民族史的 正統性의 構成要因이며 이것들은 우리 歷史의 어느 한 局面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檢出하기 위하여서는 政治史와 思想史, 그리고 文化史의 諸局面을 다 같이 留意해야 했다.

그리고 現在 韓半島위에 두개의 異質的 政治体制가 存在하고 있으며 또 그 두 体制가 제각기 民族史的 正統性을 主張하고 있다는 事實도 留意하면서 大韓民國과 北傀를 比較해서 說明했다.

北傀의 正統性概念圖式을 比較的 자세히 說明하고 分析한 것도 바로 그러한 比較의 必要를 위해서였다.

앞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選舉的 正統性 (electoral legitimacy)이나 革命的 正統性 (revolutionary

legitimacy)이 아니라 民族主義正統性(nationalist legitimacy)인 것이다. 이것은 正統性的의 根源에 따른 分類로서 民族主義正統性은 다른 두가지 正統性에 比하면 그 뜻이 複雜, 애매하고 좀더 包括的이다.

그러나 한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民族史的 正統性에 있어서는 民族主義의 中核的인 價值와 傳統이 重大한 根拠를 이루고 있다는 事實이다. 적어도 이러한 正統性的의 根拠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이 北傀보다는 훨씬 큰 強點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政治史的인 民族主義運動史의 局面에서 볼때 韓末以來 民族의 自覺에 따라 일어난 改革的이고도 獨立志向的인 運動의 傳統을 계승하고 啓發하고 있는 것이 곧 大韓民國이다. 그 두드러진 것만 들더라도 拳族的인 民主, 民族運動인 3.1運動과 上海臨時政府를 中心으로 한 갖가지 抗日民族運動의 傳統을 이어 받은 것이 우리다. 그 譜系나 足跡조차 明確하지 않은 金日成의 빨치산 鬪爭에서 抗日革命의 傳統이 始作되었다고 하는 北傀의 역설에서도 그들이 民族運動의 正統的 계승자가 될 수 없음은 明白하다. 우리 民族의 抗日運動을 이땅에서 共產主義者들의 組織이 생겨나기 이전에 始作되었고 金日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왔다. 오늘의 南北對話에 對한 北傀의 拒否的 態度도 그들의 反民族的 의도를 明白히 示現하는 歷史的 实例가 되고 있다.

思想史的 局面에서도 그렇다. 3.1運動을 하나의 分水嶺으로 해서 集約的으로 表現되고 展開된 民族의 自由와 獨立을 志向하는

政治思想이나 經濟的 民族主義와 自由主義가 오늘의 우리에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主体思想이라고 하는 것은 그 始源부터 民族的 思想의 母胎에서 生成된 것이 아니며 階級史觀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異邦的 神話를 輸入한 것이었다. 그들의 主体思想에 관한 圖式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강화하는 理念이며 民族主義를 排斥하는 理念이다.

文化史的 局面에서도 北傀는 日帝期の 抗日民族文化를 無視하는 態度를 明確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社會主義的 리얼리즘에 부합되지 않는 民族文化를 排擊하는 그들 文化의 反民族的 屬性을 들어낸 것이다. 그들을 오직 全体主義의 政治的 目的에 奉仕할 수 있는 文化의 功利的 性格을 強調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民族主義를 支配階級の 統治를 正当化하기 위한 理念的 道具로 보는 마르크시스트적 民族主義觀을 實踐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民族主体는 그들의 全体主義的 統治와 革命의 戰略에 奉仕하는 理念的 道具이며 偽裝的 名分일수 밖에 없다. 그들은 民族主義의 利益說的 局面에만 執着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南北韓間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둘러싼 競爭에서 몇가지 留意해야 할 問題點이 있다.

첫째로 北傀의 主体思想은 그 實質的 性格이나 內容에 관계 없이 對外的으로 特히 第三世界에 대하여 民族主義의 한 形態로 그릇 認識되고 있는 傾向이 있다는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가 그 價值패턴에 있어서 民族主義와는 도저히 부합될 수

없는 「안티테세」라는 一般論도 重要하지만 그들의 所謂 主体思想을 民族共產主義가 아니라 스스로 力說하고 있는 點을 注目해서 金日成主体思想의 反民族的 性格을 좀더 明確히 그리고 보다 說得力 있게 浮刻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꾸 싶다.

둘째로 民族史的 正統性은 우선 民族史의 次元에서 究明되어야 할 問題임으로 政權史的 次元에서 大韓民國이 法的으로 大韓帝國의 正統的 계승자 云云하는 法形式的이고·法記述的인 側面에서의 說明보다는 道德規範的 側面에서 大韓民國이 全韓民族에 依해서 그 正當性을 承認 받을 수 있는 諸根拠를 보다 明確히 究明할 必要가 있다.

세째로, 現在 우리 周辺에서는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말이 흔히 쓰여지고 있으나 그 概念의 混線이 除去되고 整理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사람조차도 明確한 概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說明에서 說得力을 찾기 힘들다. 이 말은 劃一화된 概念을 造作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集中的인 研究를 통해서 그 概念의 共通分母의 要素를 檢出함으로써 極甚한 說明의 混線을 避하자는 것이다.

네째로, 民族史의 繼續性에 注目하여 民族史的 正統性의 諸要素를 먼 過去의 歷史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過去와 現在의 連續性 위에서 過去로부터 계승되어 現在에도 作用하고 있는 民族의 理想과 傳統에 力點을 두고 이 問題를 究明하고 說明해야 할 것이다.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한 이야기가 古朝鮮에서만 맴돌다가 그친다

거나 지나치게 抽象的인 過去の 事實에만 치우쳐 說明되는 것은
생각해야 할 일이다.

다섯째로 現時点에서 民族史的 正統性이 論議되고 있는 時代的
背景에 注目해서 北魏의 正統性 概念과의 对照的 比較의 観点에서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한 研究가 推進될 必要를 外面해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

参 考 資 料

国会図書館 海外資料局, 蘇聯의 아시아 政策關係論集 (1969-1974)

海外資料 第 15 輯

極東問題研究所, 革命傳統講座 - 金日成放送大學講座 (1974.9)

極東問題研究所,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革命歷史講座 - 金日成放送大學講座 (1974.6)

金日成主義 學習內容 體系圖 (朝鮮大學教材)

김광진, 김광순, 변락주 共著, 조선경제사상사 (평양과학원출판사, 1963)

震檀學會, 韓國史 (乙酉文化 1966)

東亞日報社, 3.1 運動 50 周年 紀念論集 (1969)

獨立運動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 4 권), 임시정부사 (1975)

Greenstein, Fred I. and Polsby Nelson 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Vols. 1,3,5.

Wilson, George M., Radical Nationalist in Japan, Kita Ikki, 1883-1937 (Cambridge: 1969)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7)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Barnett, A. Doak,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F.A. Praeger, 1963)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